

국민배우 정보석,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2년 연속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대사로 눈부신 활약 '우주제빵소' 부스 운영 수익금 일부 등 3년째 성금

“나주영산강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2년 연속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국민배우 정보석 씨가 고향 발전을 위해 3년째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나주 반남면 출신인 정보석 배우는 지난 12일 영산강정원에서 열린 2025 나주영산강축제 폐막식에서 운병태 나주시장에게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째 이어지는 고향 사랑이다. 정보석 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제 홍보대사로 참여해 축제 기간 5일 동안 매일 현장에서 머물면서 시민과 관

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축제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아들 정우주 씨는 ‘우주제빵소’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주제빵소’ 부스 수익금 일부를 나주시에 기부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석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고향 나주의 다양한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정겨운 제도”라며 “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고향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만큼 많은 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국민배우 정보석 씨가 고향 발전을 위해 2년 연속 홍보대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대사로 2년 연속 활약하고 있는 국민배우 정보석 씨(왼쪽)가 지난 12일 축제 폐막식에서 운병태 나주시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사로 함께해 주시고 3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축제를 넘어 문화와 예술 분야에

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담양군농촌지도사회, 실증시험포 고구마 수확 및 나눔 활동 회원 40여명이 함께 재배한 고구마 40상자 담양군복지재단에 기탁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담양군농촌지도사회원 40여 명이 지난 12일 실증시험포에서 고구마 40상자(200만 원 상당)를 수확하고 이를 담양군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직접 심고 가꾼 고구마를 함께 수확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농촌지도사회는 12개 읍·면회, 5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농약 빈병 수거, 탄소중립 영농·생활실천, 고향사랑 상호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매년 수확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업문화 조

성에 힘쓰고 있다. 방해원 담양군농촌지도사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재배한 고구마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농업을 통한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농촌지도사회원들이 정성과 협력으로 일궈낸 결실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공동체 의식 확산에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주은행 씨앗봉사단, 자율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온정 나누 유기묘 보호소와 노인복지센터에서 돌봄 봉사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임)은 지난 11일, 임직원 자율 봉사조직인 ‘씨앗봉사단’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씨앗봉사단은 두 개 팀으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 팀은 ‘광주 캣맘협의회 유기묘 보호소’를 찾아 고양이 보호시설 청소, 사료 급여, 생활환경 정비 등 유기묘 돌봄 봉사를 실시했다. 다른 한 팀은 노인복지센터 ‘광주 평강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 돌봄 지원, 환경 정리, 말벗

활동 등 따뜻한 손길을 내렸다. ‘씨앗봉사단’은 JB금융그룹(JB금융지주, 광주은행, 전북은행, JB우리카페,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봉사조직이다. ‘이웃의 성장이 우리 사회 나눔 씨앗이 되어 선순환 되길 응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봉사단원들이 직접 봉사 대상과 활동을 선정하는 자율적 운영 방식으로 봉사의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 고병임 광주은행장은 “씨앗봉사단은 그



그룹 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광주은행이 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씨앗봉사단 활동을 비롯해 다문화가정·어르신·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2025년 한수원 원전 조종사 시뮬레이터 경진대회’ 최우수상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 제1발전소가 ‘2025년 한수원 원전 조종사 시뮬레이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하였다. 본 대회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 능력을 강화하고 운전 전문성을 확보하

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전체 원자력본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68개 부서가 예선을 거친 뒤 15개 대표 부서가 참가하였다. 한빛본부에서는 제1발전소 2호기 발전1부가 참가하였으며,

원전 조종사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우수한 대응 능력을 선보이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한빛본부 제1발전소는 2024년도 원자력 품질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5

년에도 1~2분기 연속 통합성능지표 최고 발전소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운전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면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한빛본부 제1발전소가 최고의 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당부하였다. 영광/이현식 기자



남구 주월1동 지사협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대규)는 최근 관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돌봄이웃을 돕는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을 실시했다. ‘착한가게’는 매출액의 일정액(월 3만 원 이상)을 매달 지속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의 자영업 가게를 뜻한다. 주월1동 지사협에서는 돌봄이웃 70명에게 관내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7만원 상당의 착한쿠폰을 제공해 후원금이 다시 착한가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착한쿠폰 사용처는 주월1동과 상생 협약을 맺은 식당, 마트, 미용실, 치과 등 착

한가게 3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대규 위원장은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게를 응원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착한가게와 지역사회, 돌봄이웃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종의 주월1동장은 “착한쿠폰 사업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상권과 연계된 나눔이 이루어져 더욱 의미있는 사업으로 자리잡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제31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정인화 시장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 만들기 최선”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시민의 상 시상 ▲기념식 및 축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비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의 상’은 매년 광양시의 명예를 드

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산업·경제 분야에서 산업인력 양성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광양만권인력양성사업단 서성기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재순천광양향우회(회장 문승태)

회원들이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3천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 정인화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모든 생애를 아우르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기념식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양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10월 14일(화) 오전 10시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제31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민의 날은 ‘광양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0월 8일에 열리나, 올해는 추석 연휴와 겹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10월 14일로 변경해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태아에서 노년까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섬진강기차마을